

피해자 파악 미흡 속 조사도 늦어져...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야

진상규명 첫 발 댄 여순사건

〈중〉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은 발발한 지 74년이 흘렀음에도 진상 규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에서야 통과되면서다.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5·18민주화운동 특별법(1995년 제정), 제주 4·3사건 특별법(2000년 제정) 등에 비해 20여년 늦은 출발이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16대 국회가 열렸던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20년 20대 국회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국가폭력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고, ‘공산주의 추종자들의 군사 반란’이라고 알려진 탓에 이념적인 이유로 법 통과를 꺼렸기 때문이다.

전남도, 피해자 1만1131명 추산
당시 이념 공포에 미신고도 많은듯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위 출범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첫 결정
집단학살추정지도 실태조사 나서

특별법은 20여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된 끝에 겨우 통과,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과 더불어 1월 21일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활동을 시작해 오는 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활동을 거친 뒤 6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출범 이전에 국가기록원 등 여순사건 관련 자료 1200여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북, 경남 일대

21개 지역에서 접수된 개별 사건 730건에 대해서만 조사해 총 1237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진화위는 ‘과거사정리법’에 기반해 진상규명 범위를 ‘민간인’으로 제한했으면 짧은 기간동안 접수된 사건만을 기반으로 조사하는 등 상당수 피해자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정확한 피해자 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과 더불어 여순사건 첫 공식 희생자 45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생자는 모두 사망했으며 유족은 214명으로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이내 방계혈족 4명 등이다.

여순사건 피해자는 이들 45명 외에도 수천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피해자 수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여순사건 직후 정부, 전남도 등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 현황 조사를 벌였으나 저마다 다른 통계 숫자를 내놓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1948년 전남보건후생국은 사망·중상·경상·행방 불명자를 합쳐 피해자 수를 4974명으로 집계했으

나 정부는 1618명, 전남도는 1441명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정부는 피해자를 5530명으로 추산했으며, 전남도는 1만 1131명으로 조사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여순사건 전문가들은 전남도에서 추산한 1만 1131명을 사실에 가장 가까운 통계로 보고 있다. 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최소 1만 5000여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피해자 수가 다른 이유는 당시 각 기관마다 통계를 내는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반란군의 자식’이라며 핍박받고, 연좌제로 인해 ‘자신도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원회는 출범한 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전국에 신고처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신고는 3200여건에 불과하다. 1949년 당시 조사됐던 1만 1131명의

28.7%에 불과한 수준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미 70-80세 고령이 된데다 연좌제로 피해를 본 경험이 남아 있고, 70년 전 괴로운 일을 왜 굳이 끄집어내느냐는 인식까지 겹쳐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전북 남원 지역에서 피해현황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 지역은 문헌상으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피해 신고 접수가 저조한 곳이다.

이밖에 여순사건 집단학살추정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의 원인이 된 제주 4·3 사건만 해도 20년 전부터 조사가 진행돼 많은 진실이 드러났는데, 여순 사건은 조사 가 너무 늦어져 유족도, 유적도 사라져가고 있다”며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피해 현황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동학대 정황 알고도 초등생 귀가조치

학교측 부실 대응 논란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시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손에 멍이 들고 부어 있는 A(13)군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학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황 발견 시 신고 의무자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한 차례 전화 시도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조차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A군을 귀가조치 한 것으로

로 전해졌다. 결국 SPO는 오후 3시경에야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학교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후 관할 경찰에 알려 경찰이 학교를 찾았지만, A군은 이미 귀가조치 됐고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A군의 조사가 진행됐다.

A군은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던 중 모친과 말다툼을 하면서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전에도 아동 학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모친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A군이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아 귀가 조치해 가해자인 모친과 분리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0~12월 교통사고, 퇴근시간대 최다 ‘주의’

일몰시간이 빨라지는 10~12월에는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에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10~1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235명 중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15%(36명)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총 78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오후 6~8시에 15%(1201건)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두운 상태에서 차와 사람이 도로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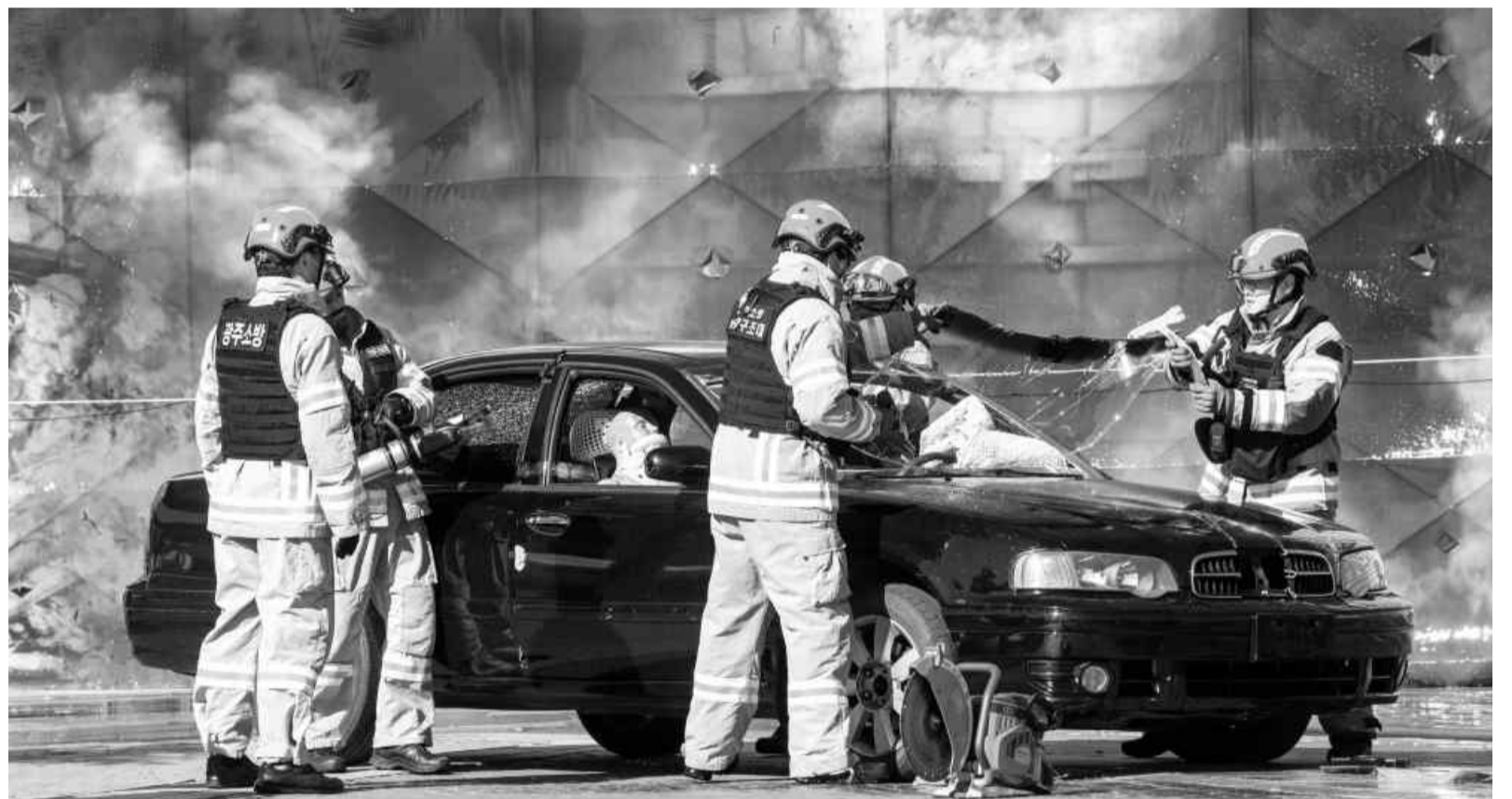
이에 경찰은 퇴근시간 대인 오후 6~8시 사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기동경력을 배

치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강력 경고 및 단속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는 과속운전과 신호위반도 병행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농촌도로의 경우 보행로가 없는 도로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속도가 느린 이륜차나 농기계 등을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수확철로 인해 농기계나 이륜차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마을 인근 농기계·이륜차 주요 이동지점에 거점 근무 및 이동순찰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을 방문해 반사지 등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도 배부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소방대원들 재난 대응 훈련
광주시 소방대원들이 18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광주월드점점에서 '2022년 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 대원들이 차량에 부상자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차체를 절단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산단 또 사고...여천NCC 화재 5명 부상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내 광주·전남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여수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

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5명이 다쳤다.

이들은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로 이중 1명은 화재에 놀라 3m 아래로 떨어져 어깨를 다쳤고, 나머지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수압테스트와 용접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압테스트 진행중에 밸브에서 불과 기름이 섞인 혼합물이 바닥에 배출됐고, 인근의 용접작업 불꽃이 혼합물로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천희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 특수반]
<p>▶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6억8천</p>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p>(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바)</p>	<p>● 월수익 - 720만</p> <p>● 연수익 - 9000만</p> <p>●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p>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p>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2) 중급반 (실전부터 ~)</p> <p>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 경매 물건 추천 ◀</p> <p>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p> <p>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p> <p>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p> <p>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p> <p>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p> <p>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p> <p>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p> <p>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p>
010-6670-9800		010-2614-9801